NH Morning Briefing

NH투자증권

Today's Report Daily | 2021. 10. 26

주식전략/경제

- **전략 인사이드/중국 분석**: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의 시사점 및 영향 ..... **박인금**

크레딧전략

- NH KR Credit Weekly: 약세 요인이 변함 없다면 ..... **한광열/최성종**
- NH Global Credit Weekly: 낮은 스프레드 변화 속 높아진 금리 상승 부담감 ..... **최성종/홍성욱/김준용**

산업/기업분석

- **NH 미드/스몰캡 이슈**: 마이데이터 시대: 우린 데이터 깐부잖아 ..... **손세훈/백준기/강경근**

  NICE평가정보 (Not Rated): 마이데이터 사업은 위기요인보다 기회요인

  쿠콘 (Not Rated): 누구나 깐부 맺고 싶어하는 기업

  핑거 (Not Rated): 마이데이터와 메타버스로 도약을 꿈꾼다

  아톤 (Not Rated):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찾는 곳

  파이오링크 (Not Rated): 데이터 트래픽 폭증과 보안 강화 이슈에 최적화된 기업

  파수 (Not Rated): 비식별화 솔루션 성장에 주목

  보맵 (비상장): 카드사도 인정한 인슈어테크 기업

  아이지넷 (Not Rated): 당신께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핀다 (Not Rated): 대출을 싸고 신속하게 받고 싶다면 핀다

  해빗팩토리 (Not Rated): 보험설계사들이 이용하는 해빗팩토리
- **카카오** (Buy유지/TP:180,000원하향): 서서히 회복 기대 ..... **안재민**
- **우리금융지주** (Buy유지/TP:17,000원상향):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 중 ..... **정준섭**
- POSCO (Buy유지/TP:420,000원유지): 높아진 이익에 주가 반등 기대 커져 ..... **변종만**

해외주식

- **중국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규제 불확실성 해소 중 ..... **장재영**
- **상해공항** (600009.CN): 3분기 이익 시장 예상치 하회, '22년 실적 회복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장재영**

NH Morning Briefing은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H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전략/경제

전략 인사이드/중국 분석

박인금 (02-2229-6168)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의 시사점 및 영향

베이징 증권거래소 이르면 11월 중 개설될 전망. 개혁개방과 자본시장 개혁 기조 유지되는 가운데 직접융자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될 것. 증권주, 금융 플랫폼 IT 기업, 신삼판 투자 A주 상장사, VC 기업 등의 수혜가 예상됨

- **베이징 증권거래소, 이르면 11월 중 개설**
  -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지난 10월 9일 98개 증권사, 8개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하는 2차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르면 11월 중에 정식으로 개설될 전망이다. 이로써 중국 본토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는 기존 상하이, 선전에 이어 베이징 증권거래소까지 총 3개로 늘어나게 된다.

-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제도적 특징 및 시사점**
  -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존 신삼판 Premium Board의 각종 기초 제도는 유지할 것이다. 다만 **개인투자자 투자 자격과 기업 상장 요건은 신삼판, 과창판 대비 완화되었다.** 진입장벽이 낮아져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고, 상장사의 밸류에이션 제고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또한 IPO 등록제 시행으로 상장 심사도 과창판 대비 더욱 단축되어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및 자본시장 개혁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지도부의 경제발전 모델 전환의지를 엿볼 수 있다.

- **주요 수혜 업종과 기업**
  - **증권주 & 금융 플랫폼 IT 기업:** 긴 호흡으로 볼 때 현재 중국 증권업은 세 번째 정책 완화 시기에 속해 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은 자본시장의 규모 확장과 증권사의 수입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거래 시스템의 변화, 거래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용량 확대에서 파생된 수요로 인해 **금융 플랫폼 기업의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삼판 기업에 투자한 A주 상장사 & VC 기업:**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은 제도 개혁을 통해 신삼판 우량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remium Board 기업의 우수한 성장성과 이익창출 능력은 모기업의 순이익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한편, **투자한 기업의 상장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VC 기업의 투자자금 회수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크레딧전략

NH KR Credit Weekly

한광열/최성종 (02-768-7975)

약세 요인이 변함 없다면

- **여전채와 회사채 위주로 스프레드 확대 지속,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크레딧 약세**
  - 지난주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 및 여전채 위주로 확대되며 약세가 지속, 특히 상위 등급의 확대폭이 컸음.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 우려와 함께 국내 경기의 저하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높은 바, 당분간 크레딧 약세가 이어질 것
  -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도 지속, 국채 3년 금리는 2%에 근접하였음. 11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단기 금리 위주로 상승 압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
- **ESG 중시 기조 하에 사업 조정 및 신사업 추진이 활발, 지주 산하 여전사의 실적 개선이 큼**
  - 포스코에너지(AA-/안정적)가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분을 전략 매각할 계획을 발표. 발전소 운영 기간은 앞으로 15년이 남았으나 최근 ESG 중시 기조 하에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 타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ESG 중시의 사업 조정 및 신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
  -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3분기 실적을 발표, 누적 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각각 17.5%, 21.7% 증가하였음. 산하의 카드사 및 캐피탈사의 이익 증가 폭도 컸으며, 향후 지주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성장세가 지속될 것

NH Global Credit Weekly

최성종/홍성욱/김준용 (02-768-7217)

낮은 스프레드 변화 속 높아진 금리 상승 부담감

- **글로벌 크레딧 시장 Review & Preview**
  - S&P500 기업 중 23%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이 중 84%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선진국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모습. 신흥국 달러채의 경우 헝다그룹의 역내 및 역외 채권 이자지급 소식에 그간 약세에서 벗어나 스프레드 축소 폭이 컸음. 신용 스프레드 축소는 제한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전반적으로 성과는 부진한 모습
  - 이번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비용 상승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에 주목. 양호한 실적 발표에 선진국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 신용 스프레드 축소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국채 금리 상승의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유동성 우려, 신용등급 하향 기조와 함께 헝다그룹의 추가 달러화채권 이자지급 유예기간(10/29일) 도래를 감안할 때 신흥국 달러채의 변동성은 높을 것
- **글로벌 크레딧 섹터별 주요 이슈: (1)금융/통신**
  - 금융: 유럽 은행들의 3분기 실적 양호할 전망
  - 통신: 후불제 무선가입자 수 증가와 이탈률 감소는 미국 통신회사들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
- **글로벌 크레딧 섹터별 주요 이슈: (2)소비재/테크**
  - 소비재: Tata Motors 및 Jaguar Land Rover 등급 상향
  - 테크: PayPal, Pinterest 인수시 신용등급 영향은?
- **글로벌 크레딧 섹터별 주요 이슈: (3)산업재/에너지**
  - 산업재: 중국 헝다그룹, 역외 달러채권 이자 지급했으나 디폴트 우려는 여전
  - 에너지: 정제마진 상승, 독립 정유 기업 실적 개선 전망

산업/기업분석

NH 미드/스몰캡 이슈

손세훈/백준기/강경근 (02-768-7971/7066/2229-6487)

마이데이터 시대: 우린 데이터 깐부잖아

'오징어 게임'에는 '깐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깐부'란 네 것과 내 것 구분없이 자원을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하에 그동안 기업들은 축적된 개인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이익 창출을 위해 활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데이터 독점은 완화되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강화될 것이다. 나의 데이터를 더 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3의 기업에 전송해 나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인과 기업이 이른바 '데이터 깐부'를 맺는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마이데이터의 핵심 내용, 도입에 따른 영향 그리고 투자 전략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번 자료에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소개도 포함하였다.

마이데이터 관련 NH투자증권 추천 및 관심 종목 리스트 (단위: 원, 십억원)

기업명	Ticker	현재가 (원)	시총 (십억원)	기업개요 및 투자 포인트
NICE 평가정보	030190.KQ	20,050	1,217.3	– 동사가 구축한 CB 사업에서의 경쟁력 단시간 내에 따라잡기 어려워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성장은 위기요인보다는 기회요인
쿠콘	294570.KQ	83,100	671.2	– 데이터를 수집, 연결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며 마이데이터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 담당 –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및 마이데이터 전용 상품 출시 통한 시장 선점 기대
핑거	163730.KQ	18,100	167.2	– 국내 최다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레퍼런스 보유 –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프로젝트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아톤	158430.KQ	28,900	125.8	– 아톤의 주력 사업인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마이데이터 사업 등 핀테크 사업자들이 많아질수록 수요가 확대. 또한 전자서명 서비스 구축도 추가 성장 포인트
파이오링크	170790.KQ	16,300	111.8	–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보안 규정 강화로 보안 솔루션 부문에서 수혜 – 안정적인 실적 우상향 전망.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파수	150900.KQ	8,660	96.6	– 획득한 데이터의 유용성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비식별화 및 결합 과정 필요 – 국내 최초로 비식별화 솔루션을 출시, 마이데이터 기업들부터 컨설팅 요청이 증가
보맵	비상장	-	-	– 소비자의 보험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보험 상품 서비스를 추천. 누적다운로드수는 300만건 이상. 마이데이터를 통해 보험상품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
아이지넷	비상장	-	-	– 동사의 '보닥'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피드백 우호적이며 수요 또한 증가 중 – 보험사향 B2B 매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이익 구조 확보할 수 있을 것
핀다	비상장	-	-	– 대출 비교플랫폼 기업으로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회건수 증가 –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고도화된 대출 서비스와 씬파일러까지 고객층을 다변화 가능
해빗팩토리	비상장	-	-	– 보험설계사들이 사용하는 보험분석 앱을 시작으로, 개인고객 보험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마이데이터를 통해 보험에서 대출, 연금 저축까지 금융 영역 확대

주1: 주가와 시가총액은 2021년 10월 22일 기준; 주2: 굵은 글씨 종목은 추천주, 나머지는 관련주; 주3: 상장사 순서는 시가총액 크기 순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카카오 (035720.KS/Buy유지/TP:180,000원하향/CP:126,000원) 목표주가 하향

안재민 (02-768-7647)

서서히 회복 기대

한국, 미국, 중국 등 각국 정부의 플랫폼 산업 규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이 강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만큼 주요 사업의 성장과 주요 역할은 지속될 것

- **사업의 성장세는 여전히 매력적**
  - 카카오에 대한 투자의견 Buy 및 인터넷 업종 Top-pick을 유지. 규제로 인한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광고, 커머스, 웹툰, 미디어, 페이 등 주요 사업의 매출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적자 사업의 실적 turnaround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도 본격화
  - 9월 나타난 플랫폼 사업 규제로 인하여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현재 주요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액 고성장과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카카오의 실적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은 큰 문제가 없을 전망. 특히 플랫폼 사업이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수요와 공급을 확대시키는 순기능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사업의 성장과 플랫폼의 역할은 지속될 것
  - 다만, 아직 규제의 구체화 가능성과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 등으로 단기 반등보다는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 예상
  - 목표주가는 기존 190,000원에서 180,000원으로 하향하는데, 일부 사업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과 최근 카카오뱅크 주가 하락을 감안함

- **기존 추정치를 소폭 하회할 3분기 실적 추정**
  - 카카오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7조원(+54.2% y-y, +25.5% q-q), 영업이익 2,294억원(+90.9% y-y, +41.1% q-q)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2,599억원을 소폭 하회할 전망.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이 큰 폭의 성공을 거두면서 게임 사업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개선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 Cashcow인 광고 사업이 3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비즈보드와 톡채널의 성장세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카카오에 재합병된 커머스 사업의 성과도 광고와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카카오 3분기 실적 P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3Q20	4Q20	1Q21	2Q21	3Q21P					4Q21E
					예상치	y-y	q-q	기존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1,100	1,235	1,258	1,352	1,697	54.2	25.5	1,710	1,644	1,737
영업이익	120.2	149.7	157.5	162.6	229.4	90.9	41.1	259.9	223.2	252.2
영업이익률	10.9	12.1	12.5	12.0	13.5	-	-	15.2	13.6	14.5
세전이익	179.6	-96.0	318.7	349.7	390.2	117.3	11.6	418.2	346.6	350.4
(지배)순이익	127.5	-189.1	224.5	311.7	305.1	139.3	-2.1	327.0	253.4	290.8

주: IFRS 연결기준;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당사는 '카카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금융지주 (316140.KS/Buy유지/TP:17,000원상향/ CP:13,000원) 목표주가 상향

정준섭 (02-768-7835)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 중

우리금융지주는 양호한 CIR과 크레딧 코스트를 바탕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지배순이익 시현. 아울러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오버행 리스크, 낮은 자본비율)도 점차 해소되고 있음

- **목표주가 17,000원으로 상향**
  - 우리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상향 조정. 목표주가 변경은 양호한 업황에 따른 실적 전망치 상향(3년 평균 ROE 9.5%→9.8%) 및 BPS 적용 연도 변경(2021년→2022년)에 의한 것으로, 2022년 예상 BPS 35,033원에 타깃PBR 0.49배를 적용해 산출

- **오버행 리스크 축소, CET1 개선, 여전히 높은 배당수익률**
  - 우리금융지주는 지금까지 작용했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 1)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0% 매각 절차를 진행중인데,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약 20여 곳에 달함.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예보의 지분 매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오버행 리스크도 점차 축소 예상. 2) 내부등급법 승인을 앞두고 있음. 승인시 CET1 비율은 현재 10.1%에서 약 1%p 개선 예상. 우리금융지주는 증가하는 자본 여력으로 증권사, VC 등 인수를 추진중인데, 성공시 지주 수익원 다각화 및 ROE 제고 등의 효과 기대 가능
  - 올해 예상 지배순이익은 2조 4,071억원(+84.1% y-y)으로, 배당성향 25.7% 가정시 DPS는 850원(연간 기준), 수익률은 6.5%. 최근 은행주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배당수익률은 여전히 가장 매력적임

- **3Q21 지배순이익 7,786억원, +62.1% y-y**
  - 우리금융지주의 3분기 지배순이익은 7,786억원으로 컨센서스(6,853억원)을 상회. Credit cost가 0.11%(+3bp q-q)로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CIR도 43.9%(-1.7%p q-q, -8.6%p y-y)로 크게 개선. NIM은 3분기 개선은 없었지만(은행 NIM 1.36%, -1bp q-q), 회사측은 4분기부터 개선(4분기 1.4%, 내년 1.4% 중반)될 것으로 전망

우리금융지주 3분기 실적 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3Q20	4Q20	1Q21	2Q21	3Q21P					4Q21E
					발표치	y-y	q-q	당사추정	컨센서스	
순이자이익	1,487	1,570	1,620	1,703	1,766	18.7	3.7	1,714	1,731	1,810
영업이익	675	233	933	1,050	1,093	61.8	4.1	815	943	353
세전이익	676	291	941	1,076	1,135	68.0	5.6	885	1,009	353
지배순이익	480	167	672	753	779	62.1	3.4	590	685	204

자료: 우리금융지주,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POSCO (005490.KS/Buy유지/TP:420,000원유지/CP:313,000원) **Update** 변종만 (02-768-7597)

높아진 이익에 주가 반등 기대 커져

3분기 연결영업이익은 철강부문 이익 증가에 힘입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국 경기 우려와 원자재 시장 개입으로 철강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약해졌지만, 견조한 이익 모멘텀은 이어질 전망

- **중국 감산으로 이익 수준 높아져, 과거의 다운 사이클 우려는 과도**
  - POSCO(005490.KS)에 대한 목표주가 420,000원과 투자의견 Buy를 유지. 당사가 제시한 목표주가는 2022년 예상실적 기준 PER 8.2배, PBR 0.7배(ROE 8.7%)에 해당.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수익성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의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각각 8.5%, 15.8% 상향. 2022년 연결영업이익 7조3,098억원(-21.1% y-y)으로 감소 예상하지만, 과거 대비 높아진 이익 수준에 주목해야할 것
  -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지속될 전망. 공급측 요인의 변화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철강산업을 짓눌렀던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험했던 다운 사이클과는 다른 환경이 될 것.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원자재(석탄) 가격 개입에 따른 영향 예상되나, 과거보다 높아진 견조한 실적 이어지며 주가 반등 나타날 것으로 기대

- **3Q21 Review: 철강부문 호조로 사상 최고 분기 실적 달성**
  - 3분기 연결실적으로 매출액 20조6,370억원(+44.7% y-y, +12.9% q-q), 영업이익 3조1,170억원(+365.7% y-y, +41.8% q-q), 지배주주순이익 2조4,300억원(+417.0% y-y, +46.4% q-q)을 공시. 별도영업이익은 2조2,960억원(+784.6% y-y, +42.9% q-q)으로 사상 최대
  - 이익 증가는 철강부문이 주도. 연결기준 철강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2조9,160억원(+745.2% y-y, +42.4% q-q)으로 증가. 본사기준 탄소강 ASP(평균판매단가)가 전분기 대비 톤당 19만6천원 상승하며 최대 실적을 견인. 비철강부문에서는 포스코에너지가 전력단가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640억원(2분기 54억원)으로 증가

POSCO 3분기 실적 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3Q20	4Q20	1Q21	2Q21	3Q21P					4Q21E
					발표치	y-y	q-q	당사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14,261	15,264	16,069	18,293	20,637	44.7	12.9	17,749	18,804	18,548
영업이익	666.7	863.4	1,552	2,201	3,117	365.7	41.8	2,795	2,596	2,395
영업이익률	*4.7*	*5.7*	*9.7*	*12*	*15.1*			*15.7*	*13.8*	*12.9*
세전이익	712.2	518.4	1,560	2,398	3,359	373.2	40.0	2,763	2,640	2,041
당기순이익	465	701	1,025	1,664	2,430	417.0	46.4	1,740	1,717	1,360

주: IFRS 연결기준; 자료: POSCO,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당사는 'POSCO'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주식

중국 인터넷 플랫폼

장재영 (02-768-7607)

반독점 규제 불확실성 해소 중

중국 공산당 11월 8~11일 열리는 6중전회에서 '세 번째 역사 결의' 심의 예정. 채택 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사실상 확정 및 당내 권력 공고화 전망. 향후 상무위원회의 반독점법 개정안 확정 시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홍콩 항셍테크 지수 및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주가 반등 기대

- **중국 반독점 규제 불확실성 해소 관련 긍정적 뉴스 발표**
  - 10월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Meituan에 반독점 규제 위반 혐의로 과징금 34.4억위안(이하 원화, 6,550억원)을 부과. 이는 시장 예상치(1.2조원)와 Alibaba 과징금 규모(3.1조원)를 하회하는 수준
  - 10월 18일, 중국은 11월 8~11일 개최되는 6중전회에서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심의할 계획임을 발표. 역사 결의는 과거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지금까지 두 번(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 채택되었음. '세 번째 역사 결의' 채택 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사실상 확정 및 당내 권력 공고화 전망
  -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촉진과 관리 감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확실히 잡아야 한다'며 이전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 10월 18일에는 Alibaba의 칭화유니그룹 인수전 참여와 출국 금지 당했던 마윈의 해외행 소식 등 반독점 규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Alibaba와 관련한 긍정적 뉴스도 보도
-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 진행**
  - 10월 1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출한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에 관한 안건 심의 진행. 초안에는 1) 공정경쟁 심사 제도 강화, 2) 법 집행 근거 명확화 및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상향, 3)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관련 기관 · 개인의 협조 의무와 당국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의 법령 명시화, 4)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대폭 상향, 5) 독점 행위를 한 기업의 법정 대표자와 주요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등의 내용 포함. 다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강제 분할, 강제 매각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홍콩 항셍테크 지수,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
  - 반독점법 개정안은 초안 심의 후, 추가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확정 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예상. 이에 따른 Alibaba, Tencent, Meituan 등을 포함한 중국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와 이들 기업이 포함된 홍콩 항셍테크 지수의 반등 기대. 관심 확대 필요

상해공항 (600009.CN/TP Consensus:49.5위안/ CP:49.7위안)

장재영 (02-768-7607)

3분기 이익 시장 예상치 하회, '22년 실적 회복 관점에서 접근 필요

3분기 이익 주요 사업부문 매출 감소(y-y)와 비용 증가로 시장 예상치 하회. '22년 중국 국내 및 해외(홍콩과 마카오 포함) 여객 수송량 증가 및 이에 따른 면세사업부문 실적 회복 기대. 모기업으로부터의 핵심 자산 인수 또한 완료 시 동사 실적 증가에 기여할 것

- **3분기 이익 주요 사업부문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시장 예상치 하회**
  - 3분기 매출액 9.4억위안(-2.5% y-y, +0.6% q-q), 영업이익 -7.1억위안(적자지속 y-y, 적자확대 q-q), 지배지분 순이익 -5.1억위안(적자지속 y-y, 적자확대 q-q) 기록.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각각 0.9%, 38.8% 하회. 이익 부진은 주요 사업부문의 매출 감소, 그리고 방역 및 재무 비용 증가에 기인
  - '21년 3분기 주요 사업부문별 경영 데이터 및 실적:
    1) 비행기 이착륙 및 여객 수송량: 3Q21 비행기 이착륙수 7.8만회(-18.8% y-y, -28.1% q-q)로 3Q19의 60% 수준. 여객 수송량 724만명(-27.3% y-y, -37.4% q-q)으로 3Q19의 37% 수준
    2) 면세사업: 1Q21~3Q21 매출액 3.7억위안(-64.1% y-y) 기록, 이 중 3Q21는 1.49억위안. '21년 1월 일상상해와의 '면세보충협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와 국제(홍콩과 마카오 포함) 여객수송량 감소에 기인

- **'22F 중국 국내외 여객 수송량 회복에 따른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 Wind 컨센서스 기준 상해공항의 '22년 매출액, 지배지분 순이익 각각 전년 대비 63% 증가 및 흑자전환 예상. 중국 국내선 여객 수송량 회복, 향후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국제선 여객 수송량 회복 및 이에 따른 면세점 부문 실적 회복 기대. 상해공항의 소주 도심공항터미널 완공, 모기업으로부터의 주요 자산(상해홍교국제공항 등) 인수 완료도 동사 실적 증가에 기여할 것

※ 상해공항(600009.CN)은 당사가 제시하는'NH 해외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기업으로 2021년 9월 28일에 편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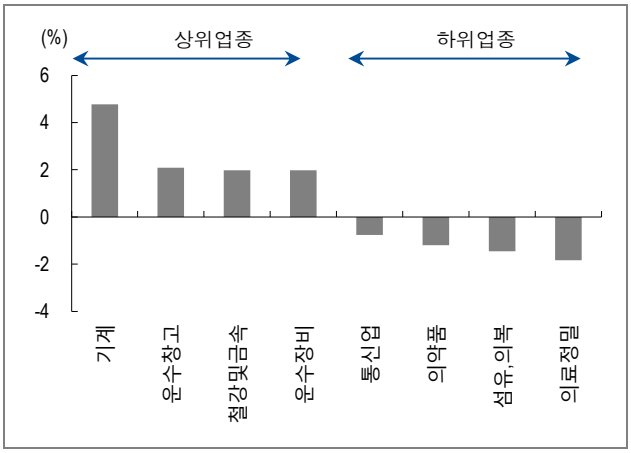
Domestic Market

		Index					Performance/Spread			
Trading Summary		25-Oct	22-Oct	21-Oct	20-Oct	19-Oct	1Day	1Week	1Month	1Year
거	주가지수(P,%)	3,020.54	3,006.16	3,007.33	3,013.13	3,029.04	0.48	0.46	-3.35	27.95
래	거래량(백만주)	792	695	887	680	846	97	15	10	-349
소	거래대금(십억원)	10,489	9,047	10,572	11,178	10,112	1,442	471	-1,840	-5,980
코	주가지수(P,%)	994.31	995.07	993.70	1,001.62	1,005.35	-0.08	0.05	-4.12	23.06
스	거래량(백만주)	1,062	1,162	1,560	1,552	1,375	-100	-216	-246	-832
닥	거래대금(십억원)	8,737	10,771	11,817	11,827	12,241	-2,034	-2,097	-2,325	-3,372
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										
거	외국인(십억원)	36	-108	53	-69	146	36	58	-2,921	-28,877
래	국내기관(십억원)	259	185	118	-211	184	259	535	256	-44,259
소	개인(십억원)	-305	-67	-160	283	-328	-305	-576	2,418	75,357
코	외국인(십억원)	-41	151	-156	-99	-9	-41	-154	-125	563
스	국내기관(십억원)	3	-26	-67	-24	-8	3	-121	-294	-8,300
닥	개인(십억원)	58	-110	245	151	61	58	404	729	13,720

주: 투자자별순매수의 Performance/Spread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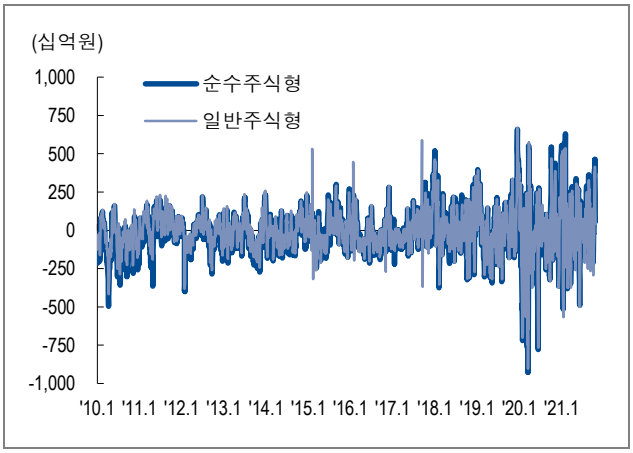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3년만기 국고채(%,%P)	1.92	1.89	1.84	1.85	1.87	0.03	0.04	0.34	1.01
3년만기 회사채(AA-)(%,%P)	2.39	2.36	2.31	2.32	2.33	0.02	0.05	0.37	0.15
콜금리(%,%P)	0.76	0.75	0.76	0.73	0.73	0.01	0.04	0.01	0.21
시가총액(조원)	2,617	2,607	2,608	2,615	2,628	9.93	10.99	-91.87	685.44
원/달러 환율(원,%)	1,168.40	1,177.10	1,177.20	1,174.20	1,178.70	-0.74	-1.62	-0.69	3.13
원/100엔 환율(원,%)	1,037.92	1,031.72	1,027.85	1,032.73	1,037.40	0.60	0.32	-3.13	-4.01
증시주변자금									
고객예탁금(십억원)	-	64,339	66,553	65,617	67,859	-	-2,643	-3,484	9,196
미수금(십억원)	-	252	237	244	218	-	37	41	-18
신용잔고(십억원)	-	23,682	23,586	23,476	23,296	-	564	-1,484	6,898
순수주식형수익증권(십억원)	-	-	87,799	87,775	87,896	-	291	2,070	15,152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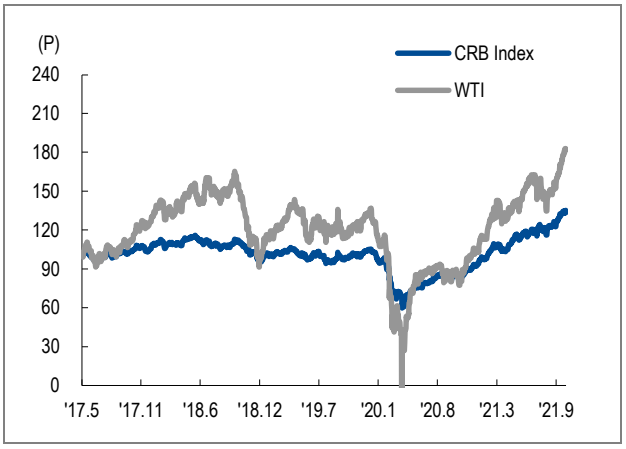
Global Market

해외주요증시		Index 25-Oct	22-Oct	21-Oct	20-Oct	19-Oct	Performance/Spread 1Day	1Week	1Month	1Year
미국	NASDAQ(P,%)	15,227	15,090	15,216	15,122	15,129	0.90	1.36	1.19	31.85
	S&P500(P,%)	4,566	4,545	4,550	4,536	4,520	0.47	1.78	2.49	31.77
	Dow Jones(P,%)	35,741	35,677	35,603	35,609	35,457	0.18	1.37	2.71	26.14
유럽	영국(P,%)	7,223	7,205	7,190	7,223	7,218	0.25	0.26	2.43	23.25
	독일(P,%)	15,599	15,543	15,473	15,523	15,516	0.36	0.81	0.43	23.36
아시아	일본(P,%)	28,600	28,805	28,709	29,256	29,216	-0.71	-1.46	-5.45	21.62
	대만(P,%)	16,894	16,889	16,890	16,888	16,901	0.03	1.13	-2.12	30.98
	중국(P,%)	9,322	9,357	9,274	9,277	9,136	-0.37	3.91	8.33	-7.94
	인도(P,%)	60,967	60,822	60,924	61,260	61,716	0.24	-1.29	1.53	49.85
라틴	멕시코(P,%)	51,834	51,890	52,020	52,298	52,403	-0.11	-1.62	1.42	33.91
	브라질(P,%)	108,715	106,296	107,735	110,786	110,673	2.28	-4.99	-4.03	7.36
국제금리 및 환율										
금리	미국채 10년(%,%P)	1.63	1.63	1.70	1.66	1.64	0.00	0.03	0.18	0.79
	스프레드(10년-2년) (%,%P)	1.20	1.18	1.25	1.27	1.24	0.02	0.02	0.01	0.51
환율	엔/달러(엔,%)	113.70	113.50	114.01	114.44	114.16	0.18	-0.56	2.68	8.59
	달러/유로(달러,%)	1.16	1.16	1.16	1.16	1.17	-0.16	0.28	-0.82	-1.99
국제 원자재 가격										
	CRB Index(P,%)	241	238	237	240	238	1.22	1.13	6.78	59.66
	WTI ($/Barrel,%)	84	85	83	84	83	-0.41	2.21	13.67	112.40
	Gold ($/Troy Ounce,%)	1,800	1,793	1,784	1,780	1,779	0.40	2.15	2.82	-5.38
	구리($/Metric ton,%)	9,704	9,704	9,832	10,186	10,150	0.00	-4.83	3.98	41.30

Global Company Performance	1Week (%,%P) 해외	국내	Gap	1Month (%,%P) 해외	국내	Gap	PER (배) 해외	국내
Intel/삼성전자	-9.29	0.00	-9.29	-8.87	-9.18	0.31	9.92	18.28
Micron Technology/SK하이닉스	2.23	2.99	-0.76	-7.14	-3.85	-3.30	13.15	14.38
Philips/LG전자	10.88	0.81	10.07	6.25	-10.75	17.01	31.52	11.39
NTT Docomo/SK텔레콤	0.00	4.56	-4.56	0.00	0.32	-0.32	-	15.12
Google/NAVER	-2.93	1.51	-4.44	-2.71	-0.74	-1.97	-	58.53
Toyota/현대차	-4.58	0.72	-5.30	-3.64	1.93	-5.57	12.12	38.69
Nippon Steel/POSCO	0.05	-2.03	2.08	-4.75	-9.28	4.53	-	15.52
Exxon Mobil/SK이노베이션	2.86	0.00	2.86	11.74	0.00	11.74	-	-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4.36	1.45	-5.81	5.40	-8.32	13.72	-	-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3.50	5.95	-9.45	-0.84	-0.49	-0.35	24.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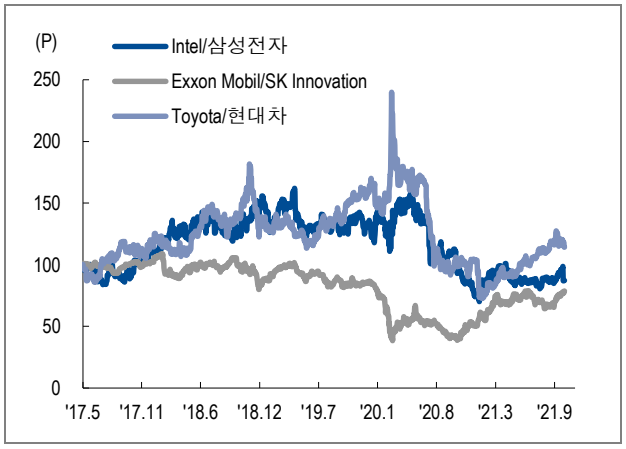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 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Buy(15%초과), Hold(-15%~15%), Sell(-15%미만)로 구분
- 본 조사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